

LESSON 14 예수님과 시각 장애인

1일 - 요한복음 9:1~7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

1. 여기 서술된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?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?

-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.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기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리라고 상상했습니다.

2. 욥기 2:1~10 과 에스겔 18:20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?

- 사탄이 시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. 죄에 대한 형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별개의 문제로, 부모나 자식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.

3.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? 자신의 말로 답을 하십시오.

-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,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(하나님의 영광, 권능)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.

4.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떤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설명해 보십시오.

- (각자의 답)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시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신 일이 있다면,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.

5. 요한복음 9:5은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말씀의 되풀이입니다 (8:12).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?

-
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이지만, 이 맹인에게서는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.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,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도 고치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이십니다.

6.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셨고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?

까?

-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,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.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. ‘실로암’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, 순종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

7. 4:46~54과 5:1~9을 살펴보십시오.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?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? 있다면, 어떻게요?

- 어떤 것을 ‘하라’고 명령하셨습니다. 왕의 신하에게는 “가라”(4:50)하셨고, 38년된 병자에게는 “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”(5:11)하셨고, 맹인에게는 “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”(9:7) 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요구하셨고,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,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

2일 - 요한복음 9:8~17 이 기적이 알려지다

8. 이웃사람들과 구경꾼들,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워서 구걸하던 그 맹인 걸인이 아니라,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

9. 치유 받은 사람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?

- 치유 받은 사람은 “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”고 하면서,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을 증언했습니다.

10. 여러분을 이 사람의 입장에 놓아보십시오.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치유와 치유자에 대해 논쟁할 때,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날까요?

- 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에 대해서,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.

11. 여러분은 의심하는 자들의 집단 한 가운데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한 적이 있습니까? 있다면,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

- (각자의 답)

3일 - 요한복음 9:18~23 이 사람의 부모에게 묻다

12.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심하기를 그칩니다. 어떤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의심을 멈추었습니까?

-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과 그 부모를 만나서 심문하면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.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.

13.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며,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?

a. 부모는 어느 것에 대답을 했습니까?

-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나, 지금은 나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.

b. 어느 것에 대답하기를 거절했습니까?

- 부모는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,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,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.

c. 왜 거절했습니까?

-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,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.

d.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,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?

- 아들이 장성하였으니,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.

14. 아마도 고침 받은 사람의 유대인 부모들은 히브리 성서를 알았을 것입니다. 시편 27:1, 54:3~4 그리고 118:6~7을 읽으십시오. 만약 부모가 이들 구절에 친숙했다면, 바리새인들과 맞서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?

(시 27:1) 여호와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. 여호와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.

(시 54:3-4) 낮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.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여 주시는 이시니이다.

(118:6-7) 여호와께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.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.

4일 - 요한복음 9:24~34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다

15. 9:25 및 9:31~32에 따르면, 이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어떻게 반응합니까?

- 그분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(25), 그분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에 응답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(31).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,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셨다는 사실이다.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히 경건한 분이며(31),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(33)고 담대하고 확신하게 대답했습니다.

16.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는 데서 그분을 담대히 방어하는 태도로 태도가 바뀐 듯합니다.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까요?

- 맹인에서 치유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,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,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.

17. 시편 34:15, 66:18 및 145:19을 읽으십시오. 어떻게 이들 절이 치유된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이들과 듣지 아니하시는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을 지지합니까?

-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,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.

(시 34:15)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.

(시 66:18)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.

(시 145:19)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

18.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된 사람의 성경적 사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? 그들은 무슨 태도는 펼쳐 보입니까?

- 치유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면서,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, 쫓아내 보내버렸습니다.,

5일 - 요한복음 9:35~41 고침 받은 사람이 믿다

19.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 고침 받은 사람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루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만남에서 부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a. 예수님과 관련해서 - 예수님께서 인자, 심판 등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진리들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.

b. 고침 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- 고침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자(구세주 메시아)로 믿게 되었습니다. 영적으로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.

20. 처음 보면 9:39은 우리가 3:17~18에서 배운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(8과 참조). 어떻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

- 3:17-18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,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, 9:39에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.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,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지만, 끝까지 교만하여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고, 스스로 다보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,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21. 예레미야 5:21 에스겔 12:2 및 고린도후서 4:4을 읽으십시오. 어떻게 “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는 것”(요한복음 9:39)이 가능합니까?

- 육신의 눈이 밝다 할지라도,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,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(렘 5:21).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,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(겔 12:2).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(고후 4:4)

22. 요한계시록 3:17~19을 읽으십시오. 영적 보지 못함의 치료제는 무엇입니까? - ‘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’ 고 했습니다. 영적인 치료제는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(계 3:19)

6일 - 동아리 참여

적용: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집단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. 여러분은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보기를 원합니까? 아니면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? 여러분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지하고 있습니까?